



국민적 화두 새만금 끝 아닌 시작

▶ 삼보일배가 남긴 것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65일째인 5월 31일 회향했다. 삼보일배는 시작부터 4대 종교인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종교인 및 비종교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행사상이든 내용상 이든 삼보일배는 불교적이지만 가톨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부까지 동참한 것은, 종교가 어떤 정치적 맹세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실 한국 종교의 특색 중 하나는 '배타성'이었다. 하지만 삼보일배에서 보여줬던 종교간 협력 가능성은 한국종교가 나아가갈 방향의 시금석이 됐다.

삼보일배가 지속될 때 화물연대의 파업과 NEIS에 대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집단 갈등을 일으켰다. 독재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적 시대를 지나 다양한 집단의 욕구가 분출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삼보일배는 상대에 대해서는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위문화'를 만들었다.

삼보일배라는 '형식'은 끝났지만 새만금이라는 '내용'은 이제 시작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화두를 국민들 뇌리에 깊숙이 새겨 넣는 것이 삼보일배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이 화두를 일상 생활 속에

'삼보일배'가 남긴 것

비폭력적... 시위문화 한단계 성숙

바다도시·해양관광특구 등 무수한 '代案' 등장

"사업계속" 전북도민 정서 넘어야 할 산

서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고도 실천적인 고민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 '새만금' 화두풀기 무성한 대안들

삼보일배로 인해 새만금은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됐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단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국외에서 해안을 빌리자는 것이다. 유럽 최대의 국립공원이자 세계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인 독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바벤메어는 원래 무서운 북해의 해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손으로 만든 방어용이었다. 갯벌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15년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 소득이 높아지면서 개발론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또 소위 말하는 '김석철 안'이 있다. 김

석철 교수(명지대 건축대학원장)는 2002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서 '기존의 방조제를 그대로 살려 방조제 안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라구나(안바다)처럼 만들고 그 주위에 해상도시를 건설해 기존 도시와 연계한 서해안도시공동체를 이뤄 결국은 황해도도시공동체의 거점도시로 만들자'는 '바다도시안'을 주장했다.

오창환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등 전남·북 지역의 토목·건축·환경 관련 학과 교수 7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안'도 대두됐다. 산업도시안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한 뒤 방조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끝 부분을 마무리 해 방조제와 방조제 사이를 교량(현수교)으로 연결하고 축소된 복합단지(1천200만평)를 10년 이내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구안'도 가세했다. 전국 22개 지역 시민·환경·노동·주민단체로 구성된 산단개혁

연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투자비 3~4조원을 새만금과 인근지역에 투자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풍력발전소'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필립 교수(방송대 과학사)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자'며 대안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위안들에 대해 이런저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조제 공사 중단"이라며 "이것이 선행되면 신규상기확단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눈길 어디로

삼보일배가 회향한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새만금간척사업중단을 촉구하며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6월 국회에서 특별결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대국회 촉구활동 전개 △시민 및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삼보일배 계승 프로그램 마련 등을 향후 활동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는 3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조사 결과 국민 66.3%가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모색 방향으로는 방조제는 현 상태로 두고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63.1%)하는 것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문제는 전북도민들의 정서다. 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논쟁종식 전북도민 총결기 대회'에 도민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해 41명이 사발했다. 또 전북공무원 노조 산하 11개 지자체 공무원 45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쌓여 남아도는 현실에서 애초 추진 목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 당위성이 상실됐고, 앞으로 갯벌의 가치가 간척지보다 100배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전팀장은 "전북도민의 정서를 돌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 해결의 시초"라며 "새만금을 중단하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하면 발전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타파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새만금 갯벌”은 환경문제로 풀고 전북 소외감은 정부차원 해결을”

삼보일배 회향후 실상사서 몸 추스리는 수경 스님

65일간의 대장정을 끝낸 수경스님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평소 앓아왔던 무릎 관절염과 녹내장이 심해져 의사로부터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다. 또한 격렬한 고행으로 몸에서 근육세포가 죽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다. 스님은 5월 31일 삼보일배 회향 후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5일 퇴원했다. 스님은 이와

원에서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만금 간척사업이 도민들이 기대하듯 전복을 발전시키는 안이 아닌 데도 그러는 것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때문일 겁니다. 새만금은 환경문제로 풀고 소외감은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인 5일 삼보일배에 참석했던 문정현 신부님의 형인 문정현 신부님께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최근 일고 있는 전북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항의해 도청 앞에서 침묵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 몰랐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삼보일배 회향 후 환경단체에서 역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당분간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삼보일배는 불교계

관절염·녹내장 치료...“좀 쉬고 싶습니다”

‘삼보일배’ 내부평가 거쳐 향후 계획 논의

기 내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피곤하다' '쉬고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삼보일배는 끝났지만 새만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일단 남원 실상사로 돌아가 몸을 추스릴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관절염과 녹내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받은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삼보일배 참가자들과 내부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사발 농성을 하고 전북공무원 45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 차

뿐 아니라 전국적인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불교적인 방식의 '시위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삼보일배 이후 우리 불교계가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삼보일배에 직접 참여한 제 자신으로써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불교계 내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몸짓을 보였으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남동우 기자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불자들이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 드는 법까지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남녀 일반인, 30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 1차 : 7월 13일(일) ~ 7월 16일(수)
 - ▶ 2차 : 7월 28일(일) ~ 7월 31일(목)
 - ▶ 3차 : 8월 4일(일) ~ 8월 7일(목)
3. 장 소 : 금강선원 참선수련원(강원도 홍천 선문장)
4. 참가비 : 오만원(수련교재 및 T-셔츠 제공)
5. 문의처 (신청접수, 준비물 및 교통편 문의)

금강선원(서울 개포동) ☎ 02)445-8484
선문장(강원도 홍천) ☎ 033)433-5845~6

혜거스님 강의인내 화요일(원각경) 수요일(기초교리), 금요일(금강경) 토요일(기초참선)

대한불교조계종 金剛禪院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양토지역계산'입니다.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0)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훈구 대표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을 가시오가피
러시아, 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통종소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ml x 6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08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